

추신수 1년 몸값 44억 '연봉 홈런'



작년보다 9배 껑충… 클리블랜드와 재계약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연봉 조정으로 가지 않고 거액 몸값에 재계약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은 19일(한국시간) 추신수와 1년간 397만5000달러(한화 44억2600만원)에 재계약했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연봉 하위선인 46만1100달러를 받았던 추신수는 몸값이 9배 가량 올랐다.

추신수는 지난 시즌 2년 연속 타율 3할을 때리면서 20홈런-20도루를 작성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연봉 조정을 신청했으나 다음 달 2일부

터 열릴 연봉 청문회에 가기 전에 극적으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이로써 추신수는 1500만달러까지 받았던 박찬호(38·오리ックス), 657만달러에 사인했던 김병현(32)에 이어 역대 메이저리그를 밟은 한국 선수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2000년 시애틀과 계약해 미국 땅을 밟은 이래 추신수는 11년 만에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미국 언론은 풀타임 3년을 채워 연봉 조정 자격을 얻은 추신수가 300~4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클리블랜드 구단은 400만달러에 근

접하는 액수를 제시, 추신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봉 조정에 가면 이보다 더 높은 액수를 챙길 수도 있었지만 추신수는 구단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금액에 도장을 찍었다.

추신수와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는 클리블랜드 구단의 장기 계약을 거부하고 1년마다 계약을 경신하는 방식을택했다. 클리블랜드 구단 재정이 빈약해 매각론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포함 앞으로 3년간 클리블랜드에서 더 뛰어야 하는 추신수는 2013년 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대박을 노릴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타격 7관왕 이대호 몸값 7억 받을까

KBO 오늘 연봉 강제 조정

프로야구 스포츠브리그를 달구는 최고 거포 이대호(29)의 연봉 다툼이 강제조정으로 정리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대호와 롯데가 제출한 연봉 산출 근거자료를 심의한 연봉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 20일 오후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KBO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들은 KBO 사무총장과 법률전문가, 외부의 야구계 인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관례대로 사무총

장이 참석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야구를 잘 알고 합리적이고 종합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야구인들과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구단 관계자와 이대호는 전지훈련 일정 탓에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데 따라 청문회 형식의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호의 연봉 요구액은 현재 리그 최고연봉인 7억원이고 롯데의 제시액은 6억3000만원으로 차이는 7000

만원이다.

이들의 연봉 다툼은 예년과 달리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시즌 타격 7관왕, 연속경기 홈런 세계기록, 골든글러브, 최우수선수 등을 거머쥔 최고 스타와 인기 구단이 다툼하면서 갈등이 선수와 구단의 자존심 대결로 일변화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KBO는 조정위가 원칙적으로 선수와 구단 가운데 한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선수가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는 미국, 일본 프로야구를 포함해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구단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수는 자유계약(FA)로 뛸려 아무 제한 없이 다른 구단과 입단 협상을 치를 자격을 얻는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우수인재 70명에 장학금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남도체육회 장학생'이 탄생했다.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18일 전남도청 윤인실에서 박준영 도지사, 기맹경기단체 관계자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선수는 초등 33명, 중등 15명, 고등 19명, 대학생 3명 등 총 70명으로 각각 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이 전달됐다.

2010학년도 우수선수상에

빛나는 축구 박건우(순천중앙초)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고현재(전남체육중), 종별불링선수권대회 전관왕인 이다정(고흥산업고), 하기 국가대표 후보에 뽑힌 이유립(목포여고), 전국체전 양궁 금메달리스트 윤설이(순천대) 등 전남체육의 기대주들이 첫 해 장학금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학금을 전달한 도체육회 회장 박준영 도지사는 "전남 체육인들에게는 더없이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전남 체육, 나아가 한국 체육을 도

빛내는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전남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2011년 현재 10억 8062만원이 모금됐으며 그 이자액으로 발생된 3370만원이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요정의 강서브

마리아 사라포바
(러시아)가 19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비르
지니 라자노(프
랑스)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
다. 사라포바가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한국바둑, 농심배 우승 단 1승 남았다

최철한 3연승 질주

우승까지 단 1승이 남았다.
'독한 승부사' 최철한의 거침없는 3연승으로 한국의 농심배 10회 우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최철한 9단은 19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12회 농심신라면 세계바둑최강전' 최종라운드 제2국에서 일본의 마지막 주자 유카 사토시 9단에게 흑으로 145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전날 중국의 저우뤼양에게 일방적으로 승리했던 최철한은 이날도 최고의 컨디션을 보였다.

최철한은 20일 같은 장소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인 쟁제 9단을 상대로 자신의 4연승과 함께 한국의 우승을 걸고 대결을 벌인다.

세계최강으로 평가받는 중국에게 역대전적에서 1승4패로 밀리고 있으나 최철한도 연승의 기세를 타고 있어 한국의 통산 10번째 농심배 우승을 기대해볼만 하다.

/연합뉴스

GG경매컨설팅(주)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 알선

대표이사 노찬구 ☎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 균형시설/근린상가/주유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곡동	1120/3954	27억원	15억천백	4층건물
	월곡동	115평	5억4천백	2억4천	오피스사무/2층
	월계동	365/1238	12억2천9백	8억5천백	유형증건물
	상동	512/251	9억5천백	6억5천백	유형증건물
	장석동	3070/498	26억3천8백	18억4천7백	주유소
복구	신동통	2311/112	20억7백	16억8백	주유소
	종충동	737/722	115억6천6백	6억4천5백	3층건물
	신동통	330/108	69억천	49억5천백	주유소
남구	주월동	715/3505	36억5천5백	25억천5백	7층짜리
동구	사신동	1060/36	4억8천9백	3억4천9백	단층
서구	세화동	651/165	2억7천백	1억5천5백	단층
	세화동	1730/456	12억3천9백	8억8천7백	주유소
장성군	장성읍	436/617	6억5천	2억9천1백	식당/민물장
임성군	임성면	691/220	1억4천8백	6천3백	단층식당
	월산면	7765/1052	6억8천3백	2억8천8백	기숙사

▶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남구	월산동	206/196	1억5천백	1억천
	방법동	270/295	1억2천9백	8천6백
복구	두암동	181/320	2억5천백	1억4천1백
	월곡동	196/220	1억5천백	9천5백
북구	양신동	316/140	1억5천백	6천8백

▶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복구	운집동	375/815	6억8천8백	3억7백
	생활동	992/1357	17억4천9백	9억7천8백

▶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곡동	1711/102	1억5천8백	747평
	황평면	10547/3870	29억8천9백	19억9백

▶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광주	운집동	300/90	5천4백	3천8백
	Honam	2300/6959	2억7천8백	1억5천5백

▶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th
----	-----	------	----------